

제50호·2017년 12월 6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동향

하바롭스크주, 개발 프로젝트 성공사례 발표

- 올해 1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하바롭스크주는 '콤소몰스크-나-아무레 사회·경제 개발 프로젝트' 실현에 대한 경험을 발표함
 - 빅토르 칼라슈니코프(Viktor Kalashnikov) 하바롭스크주 경제개발부 부총리는 개발 프로젝트의 장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본 프로젝트는 작년 4월에 도시개발 계획으로 채택됨
- 본 프로젝트의 장기 계획에는 콤소몰스크-나-아무레 도시의 주거환경 개발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, 엔지니어링 인프라 현대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
 - 또한 장기 계획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 사회·경제 발전을 위한 33개의 정책이 계획되어 있음
 - 두번째로는 교육, 보건, 문화 및 관광, 교통, 에너지,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 시설 등 27개의 부문에 대해 계획되어 있음

콤소몰스크-나-아무레 도시경관

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9958>(검색일: 2017년 11월 16일)



- 알렉산더 갈루슈카(Alexxander Galushka)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부 장관은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종합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개발 프로젝트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함
-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하바롭스크주 경제개발부 부총리는 하바롭스크주에서 진행되는 도로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함
 - 도로개발 프로젝트는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and 도로의 질적인 측면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
 - 도로개발 프로젝트는 1개의 하위 프로그램과 1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음
 - 하위 프로그램에 따라 하바롭스크의 약 150개의 도로와 약 25개의 공공구역이 재건됨
 - 그리고 하위 프로젝트에 따라 약 57km 이상의 고속도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약 25개의 교통감시 카메라, 약 7개의 신호등 및 약 6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됨에 따라 36곳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이 감소됨
- 현재 하바롭스크주에서는 총 18개의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9958>(검색일: 2017년 11월 16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야쿠티야, 철도 화물 운송량 증가

- 2017년 10개월간 베르카이트-툼모트(Berkakit-Tommot)구간의 철송 물동량이 약 398만 톤 처리되었으며 전년대비 약 17.1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사하공화국 주정부에 따르면 올해 10개월간 화물 운송량은 이미 작년 전체 운송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
- 올해 10개월간 석탄 물동량은 약 270만 9,900 톤으로 전년대비 약 26.6% 증가함
 - 석유제품의 경우 약 43만 1,400 톤이 처리되었으며 전년대비 약 26.1% 증가함
 -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25만7,000 톤으로 전년대비 약 9.7% 증가하였으며 건설장비 화물은 약 15만 6,900톤으로 전년대비 약 14.9% 증가함
 - 기타 화물의 물동량은 약 21만7,480 톤으로 전년대비 약 5.32% 증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

사하공화국 철도 프로젝트 구간



자료: <http://expert.ru/expert/2013/32/poezd-na-cever/media/203791/> (검색일: 2017년 11월 18일), 저자 재구성



- 현재 사하공화국 주정부와 러시아철도공사는 사하공화국의 철도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
 - 개발될 구간은 '툼모트-야쿠츠크(니즈니 베스타흐) 베르카키투(Tommot - Yakutsk (Nizhny Bestyah)) 라인'과 '툼모트-야쿠츠크(사하공화국)' 구간임
 - 현재 건설 중인 '툼모트-니즈니 베스타흐(Tommot-Nizhny Bestyakh)'구간의 운송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 - 2016년도 본 구간에서 처리된 총 물동량은 약 46만1,000 톤이며 올해 10개월간 물동량은 약 52만6,000 톤으로 기록됨
-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3월 1일까지 사하공화국의 철도개발 프로젝트 시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함
 -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올해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극동지역 사회·경제 발전에 대해 회의를 진행함
 - 회의는 '극동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10년간 개발 조건 마련'이라는 주제로 진행됨
 - 이외에도 '극동 헥타르 계획 시행', '투자 프로젝트 이행', '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 환경 및 투자 체제' 등에 대한 회의가 진행됨
 -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와 계획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3년 안에 극동지역의 모든 비즈니스 환경 등급이 국가 비즈니스 상위 등급에 진입해야한다고 강조함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9948/>(검색일: 2017년 11월 18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블라디보스토크 석탄터미널 확장

-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시행과 항구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17년 10월 4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확장하기로 함
- 이번에 확장될 항만은 석탄 적재를 위한 터미널로 아트크리트이(Otkryty)곶과 베즈자쉬트나야(Bezzashitnaya)만에 위치함
- 이번에 확장될 석탄 터미널의 연간 수용량은 약 2,000만 톤임

아트크리트이곶과 베즈자쉬트나야만 위치



자료 : <https://www.google.co.kr/maps/@43.0463353,132.1539162,28036m/data=!3m1!1e3>(검색일: 2017년 11월 24일), 저자 재구성



- 석탄 터미널은 석탄 적재를 위해 2개의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라항만(ООО «Порт «Вера»)과 보스톡우골(ООО «Восток Уголь»)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함
 - 본 프로젝트에는 석탄 터미널 확장과 더불어 약 140km 구간의(아무르주의 오고자 지역 부터 페브랄스크역까지)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구축도 포함되어 있음
- 본 프로젝트는 2017년 8월 28일 정부 시행령에 따라 극동지역 투자프로젝트¹⁾에 포함됨
 - 러시아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극동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됨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항 개발 및 새로운 환적 인프라 구축,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

자료: <http://portnews.ru/news/248890/>(검색일 : 2017년 11월 16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1) утверждён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 23 марта 2015 года №484-р, 2015년 3월 23일 정부 법령에 따라 승인됨



콤포소몰스크, 2020년까지 도로 재건에 약 20억 루블 투자

- 2020년까지 콤포소몰스크-나-아무레(Komsomolsk-on-Amur) (이하 콤포소몰스크) 도로 재건을 위해 약 20억 루블이 투자될 예정임
 - 콤포소몰스크 도로 재건은 도시 종합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임
 - 데니스 샤타로프(Denis Shatalov) 콤포소몰스크-나-아무레 복합단지 개발 및 투자 부장에 따르면 2016년에 도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총 149개 구간, 약 247km의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하였다고 함
 - 또한 러시아 연방 도로 공사는 콤포소몰스크 도로 재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라 도시 도로 네트워크 개발 및 재건 등이 실행될 예정임
-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콤포소몰스크 도로 재건에 약 3억4,320만 루블이 투자될 예정임
 - 현재 약 24.5km에 달하는 37개의 도로망 건설과 기타 3개의 교통지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
- 데니스 샤타로프 부서장은 도심 도로 재건 계획 외에도 콤포소몰스크 고속도로 개발을 위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재 러시아 연방 국가전문위원회 심사 단계라고 발표함
 - 고속도로 재건 후에는 개발 마지막 단계로 '프로스펙트 파베디-페름스카야 거리'까지 도로를 연결할 계획임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0264/>(검색일: 2017년 11월 16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물류이슈

러시아 극동 내 한·중·일 투자 현황 및 비교

러시아 극동 내 일본 투자 현황

- 러시아철도공사 로지스틱스 사(社)가 시베리아횡단열차(TSR)를 이용한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설함
 -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시, 해상운송보다 2배 이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
 - 지난 11월 28일 열렸던 제14차 러일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발(發) 화물을 극동지역 항만을 통해 내륙으로 운송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 논의된 바 있음
- 일본은 사할린 지역 에너지 분야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
 - 알렉세이 텍스레르 러시아 에너지부 제1차관은 일본의 경제통상산업부와 공동으로 에너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, 원자력 뿐만 아니라 탄화수소,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했음
- 러시아는 일본에 극동지역 투자 규모를 10억 달러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함
 - 러시아극동개발부는 러일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투자 규모 확대를 제안했음
 - 극동개발부 차관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는 일본의 극동 내 프로젝트에 투자한 규모는 약 1억 달러이며, 이는 한국, 베트남, 중국에 비해 적다고 꼬집음
 - 또한 그는 향후 2년 내 일본의 극동지역 투자 규모를 약 10억 달러까지 늘여 협의 중인 프로젝트들의 설계 및 시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
 - 즉, 러시아 측은 작년 12월 체결한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 일본은행들 간 MOU를 기반으로 10억 달러 규모로 러일투자펀드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음
 -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은 극동에서의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, JGC, 홋카이도 Cor., 이이다 그룹 등이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으로 지정되었다고 강조함



- 그 외에도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양국 정부 승인에 합의했으며, 북극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일본 기업들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
- 막심 오레시킨 러시아 경제부 장관은 러일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때라고 주장함
- 양국 간 교역의 규모는 2017년 1월에서 9월까지 15.9% 증가했으며,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억 달러 증가한 수치임
-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100개가 넘는 협약들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소수임에 따라 현실성을 투반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행동으로 보일 시기라고 강조함

러시아 극동 내 중국 투자 현황

- 중국과 러시아는 하얼빈-블라디보스토크 고속철 건설 논의 중
 - 총 길이는 380km이며, 시속 250km로 운행되는 고속철 건설을 논의 중임
 - 이 고속철은 총 12개의 철도역을 통과할 계획임
 - 이 프로젝트 투자자인 중국중철주식회사(CREC, China Railway Group Limited)의 차이체민 사장은 동 고속철이 여객용으로 운행될 예정이지만, 추후 경제성을 검토하여 화물 운송용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
 - 또한 그는 동 고속철 권역의 도시 거주 중국인이 약 6,500만 명으로 잠재적 수요가 크며, 연해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
- 극동곡물터미널 사(社)는 자루비노항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음
 - 시베리아농업 전시회에서 극동곡물터미널 사(社)와 대외경제물류센터, 옴스크식품 사(社), 시베리아 제빵제과 사(社)는 MOU를 체결함
 - 극동곡물터미널 사(社)는 천만 톤의 식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자루비노항 내 곡물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음
 - 옴스크식품 사(社), 시베리아 제빵제과 사(社)는 옴스크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한국, 중국 등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루비노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
 - 현재 자루비노항과 훈춘을 잇는 65km 길이의 하이퍼루프 건설을 계획 중으로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베리아 지역 내 곡물 생산기업들에게 자루비노항은 중요한 의미임



- 중국은 극동지역 주요 투자자로서 중국과 러시아 간 경제적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
-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 투자자이자 수출입국으로서 양국 간 경제 협력 분야가 다각화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규모 또한 커지고 있음
- 총 28개의 프로젝트가 중국과 러시아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, 총 투자 규모는 40억 달러에 달함
-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중국 측이 투자한 금액은 전년 대비 약 3배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음

러시아 극동 내 한국 투자 현황

- 11월 6일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한국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및 관련 인프라, 물류 분야에서의 투자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MOU를 체결함
-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한국 기업이 2개의 수산업 분야 프로젝트에 1,300만 달러를 투자 계획 중이라고 밝힘(캄차트카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과 프리모르스키 명란생산 공장 건설)
- 수산물가공센터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 갈루쉬카 장관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, 러시아는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함

-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에 필요한 쇄빙선을 건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
- 한국은 북극항로 개척, 자원개발과 같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쇄빙선 건조 프로젝트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
-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북극항로 개발 프로젝트 관련하여 현재 무르만스크와 페트로파블로프스크-캄차트카를 허브 항만으로 개발하고, 컨테이너 선의 항로 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정했다고 강조함

- 문재인 정부는 한국 투자자의 날을 정례화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함
- 문재인 정부는 한국 투자자의 날을 정례화하고,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투자 컨설팅 기능을 강화했음
- * 2018년 상반기 중 제2회 한국 투자자의 날 개최 계획 중
- 또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했으며, 문재인 정부의 9 bridges(가스, 철도, 항만, 전력, 북극항로, 조선, 일자리, 농업, 수산) 전략 분야별 추진방향 및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및 점검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



- 9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20년까지 한러 교역규모를 300억 달러로, 인적 교류를 연간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
- 11월 30일 우윤근 주러 대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올해 170억 달러였던 한러 교역량이 2020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함
- 현재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구역에 입주한 9개 한국기업은 블라디보스토크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, 캄차트카 수산물 가공 공장 설립, 볼쇼이 카멘 호텔 건설, 아르툠 가전제품 생산공장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임
- 그 외에도 한-EAEU FTA 추진, 한-러 전력연계 협력사업, 수산분야 투자 및 기반시설 조성 등 그간 정체되어 왔던 한러 간 사업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

-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 장애 요인으로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금융 불안정, 북한의 핵 위협, 행정절차의 복잡성, 높은 부패도 등이 있음
-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는 연방국가로서 법적·인적 지원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같은 사안은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임에 따라 시간이 걸리지만, 각 기업에 맞는 법적,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함
- 특히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극동개발기금은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금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'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'에 합의해, 극동지역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손꼽혔던 금융조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임

자료: <https://sm-news.ru/news/turizm-v-rossii/1-5-tys-yapontsev-uzhe-poluchili-elektronnuyu-vizu-dlya-poseshcheniya-rossii/>(검색일: 2017년11월 21일 검색)
<http://primorsky.ru/news/136510/>(검색일: 2017년 11월 25일 검색)
<http://tass.ru/transport/4776720>(검색일: 2017년 12월 5일 검색)
<https://eprussia.ru/news/base/2017/1866208.htm>(검색일: 2017년 12월 5일 검색)
http://www.akm.ru/rus/news/2017/december/01/ns_5925093.htm(검색일: 2017년12월 5일 검색)

김엄지 연구원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